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직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2월 4일 (토) 제 162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미국인 중 과반수가 성경 읽는다!

### 바나리서치, 2017년 결심으로 성경 읽고자 하는 미국인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7년을 맞아 느슨해졌던 마음을 잡고, 새로운 결단과 계획들을 세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경건훈련은 바로 그러한 결단이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항상 뒷전이 되기가 십상이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한다. 통독을 하거나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반드시 읽겠다는 다짐으로 이미 2017년이 시작됐다.

‘바나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읽기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Bible Reading in 2017: A New Year’s Resolution).

한 삶의 변화가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성경을 다운로드해서(18%), 지인이 성경을 읽고 좋아서 모습을 보고(14%), 교회에 나가면서 좀 더 친숙해져서(12%), 성경을 함께 읽자는 제의를 받아서(10%), 종교와 영성에 관한 미디어의 대화를 듣고(5%) 성경을 좀 더 읽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반대로 성경 읽기가 줄어든 동기에 대해서 58%의 응답자(2016년에는 40%)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므로 너무나 바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돼서(17%),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해서(17%), 신앙에 회의를 느낄 만큼 어려운 경험을 해서(12%), 가족의 죽음이나 실직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겪어서(8%),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6%), 다른 종교로 개종해서(5%) 성경 읽기를 덜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아직까지 미국인 중 과반수 이상이 성경을 더 읽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의 2/3(66%)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성경을 읽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추세는 기복이 없이 안정적이다. 바나리서치의 편집장 록산 스톤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의 다른 결심처럼 성경 읽기도 목표에 대한 포부만 있을 뿐, 대부분 바쁜 일상에 쫓겨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오늘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16면으로 계속)



많은 미국인들이 2017년 새해에 성경읽기를 결심했다. 그중 57%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읽고 싶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읽고 싶은 걸까?

지난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23%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다고 답했으며, 반면 8%는 줄었고 66%는 변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2012년부터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긍정적인 결과 즉 별다른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늘어났다(2016년의 66%, 2012년의 58%).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 비율(23%)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그룹은 여성(26%), 저소득층(26%), 흑인(42%), 남부 주민(29%)

이었다. 여기에 중생한 크리스천은 40%, 실천적인 크리스천은 44%, 활발한 교회 출석자는 4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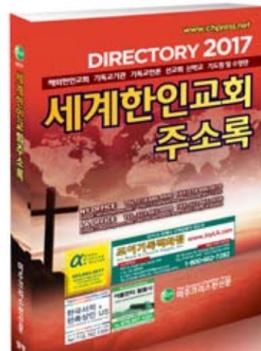
지난 해 응답자의 평균 비율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은 그룹은 역시 밀레니얼 세대(11%), 무신론자 및 불가지론자(10%), 교회 출석이 덜 활발한 크리스천(16%), 흑인(11%)이었다.

한편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67%는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했으며, 28%는 힘든 삶속에서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20%는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

## 사 고

###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 지역별 배부장소

#####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 762-1200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 762-0011  
할렐루야 기독백화점(NJ) (201) 373-0029

#####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 737-7699  
도르기독교서점(OC) (714) 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 530-2211  
복음사(OC) (562) 865-4949  
두란노서적 (213) 382-5400  
조이기독백화점 (213) 380-8793

##### ▶ 기타지역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 583-0191  
메릴랜드 지구교회 (301) 460-1656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 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 542-0288  
텍사스주 버클리교회 (215) 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 332-5656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 957-1021

#####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 886-4400  
LA사무실 (323) 665-0009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공운 목사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 기고 노봉린 박사 14면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16면



##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 (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 2017 겨울 학기 인텐시브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FAFSA) 가능하며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 (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입학안내 문의: 직통 213.327.8095 켄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시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며



김봉문 목사 (백스카운터장로교회 담임)

지난달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필자는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첫째, 대통령이 외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미국이 위대해 지는 것이 사람이 강조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백악관 뒤편에 있는 세인트존스 교회에 가서 예배하므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제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때부터 시작된 이 예배가 공식화되어서 그 교회는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그가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적인 첫걸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마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되다"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품고 일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통령과 참 모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즈니스맨에서 정치인으로, 회장에서 대통령이 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4년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기도해본다.

둘째,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후보선정을 위한 전당대회 및 대통령 선거 유세로 시작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확신한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 같다. 그러나 막상 개표해보니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당선 이후에도 취임식 당일에도 아직도 그에게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취임식이 마무리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서도 직원선거를 해보면 그 결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간혹 공동체를 이탈하는 분들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과정을 위하여 쏟는 최선 못지않게 이루어주시는 결과도 최선의 선물로 알고 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잠언16장 33절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임연설에서 그가 말한 대로 정치인들의 나라에서 국민들의 나라,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나라에서 국민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합쳐야 한다.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보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나라에서 순종하는 나라로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그의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며 걱정과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일단 공화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을 놓고 기도해 보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반성경적인 성향이 더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 이 나라를 성경중심 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열왕기하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아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씀이 있다. 트럼프와 펜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여호아다와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처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국의 재건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자!

pwkim529@gmail.com

알레포 전투 승리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 부상!

뉴스위크, '시리아내전개입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아사드 정권 도우면서 레바논서도 입지 다져' 보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구역 다히예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에서 50대 초반의 체격 다부진 알리(가명)가 허리에 권총을 찬 채 철제 프레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곁에 있는 탁자 위엔 M16 소총이 놓여 있었다. 비슷한 나이에 머리가 반백인 그의 친구는 문 앞을 지켰다.

알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리아 알레포에서 찍은 동영상용 기자에게 보여줬다. 위장복을 입은 그가 커다란 기관총을 들고 다른 대원 3명과 담뭍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배경에선 총성과 박격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게 나다." 그가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가리켰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

동영상에서 그는 상체를 굽히고 빈터로 달려 나갔다. 그곳에는 자바트 알누스라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자바트 알누스라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슬람주의 반군단체로 알카에다 연계조직이다. 알리는 그 깃발을 내리고 대신 헤즈볼라 깃발을 올렸다.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파로 자칭 '신의 당'인 헤즈볼라는 2012년부터 시리아 정부군의 편에서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영상이 끝나자 알리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알레포를 탈환했지만 아직 우리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뉴스위크는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다시 레바논 즉 중동 지역의 강자로 들어선 헤즈볼라가 결국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고 생생하게 현지에서 보도한다(HEZBOLLAH IS THE REAL WINNER OF THE BATTLE OF ALEPPO).

지난해 12월 22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헤즈볼라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오랫동안 포위했던 도시 알레포 탈환을 위한 전투 끝에 승리를 선언했다.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유엔은 반군 대원과 민간인 3만4000명을 알레포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승리가 처음부터 확실시 된 것은 아니었다. 또 헤즈볼라의 개입 결정이 반드시 현명한 것도 아니었다. 2013년 5월 헤즈볼라 지도자 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1년 전부터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 반군과 싸운다고 발표하자, 많은 레바논인들이 혼란스러워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헤즈볼라깃발과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은 공존하는 세력이다

한 고참 지휘관들을 상당수 잃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헤즈볼라 대원들은 시리아에서 감수한 자신들의 희생이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느낀다.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지켜내거나 아사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막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맞설 조직은 없다"고 그 지휘관은 말했다.

그가 자신만만해 하는 이유 한 가지는 정치다.

지난해 10월 레바논 유권자들은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미셸 아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정정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대통령 자리는 2년 동안 비어 있었다). 헤즈볼라의 시리아 내전 개입이 처음엔 그들의 지지도가 떨어뜨렸지만 반군이 갈수록 과격화·급진화 하면서 많은 레바논인은 IS 같은 반군을 더 큰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헤즈볼라는 불필요하게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세력에서 레바논과 IS 사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유일한 존재로 탈바꿈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헤즈볼라를 연구하는 아우렐리 다헤르 교수는 "정치적 차원에서 시리아 내전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확고하게 세력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간판에 불과, 실세는 헤즈볼라” 주장  
이스라엘, 무장수준과 최근 시리아 실전 경험 크게 우려

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지지가 크게 떨어졌다.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기 전에 시리아 혁명을 지지했던 레바논의 수니파 무슬림 다수는 격분했다. 그러면서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레바논의 도시 트리폴리와 북부 국경 지대에서 수니파 공격했다.

더욱이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헤즈볼라는 많은 대원과 군사물자를 잃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결국 알레포 탈환전에서 승리했다. 시리아의 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으로 입지를 다졌다. 한편 제립을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게 의존했던 헤즈볼라는 이제 시리아 정부군보다 더 강해졌

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다히예의 다른 아파트에서 큰 지휘관이 초조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지켜봤다. 그 역시 시리아 내전에서 헤즈볼라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 언론에 공개할 허락을 얻지 못해 이를 밝히지 않았다. "시리아 내전이 국지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가 뉴스위크에 말했다. "알레포에는 국제적인 영향이 아주 컸다. 테러리스트(반군)는 고성능 무기로 무장했다. 그들은 터키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과 무기가 풍부하다. 많은 나라가 반군을 돕는다."

내전의 피해를 집계하는 독립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의 추정에 따르면 헤즈볼라

는 시리아에서 대원 1,387명을 잃었다. 한때는 병력 손실이 너무 커 일부는 주적인 이스라엘과 싸울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헤즈볼라 분석가 란다 슬림은 "헤즈볼라는 노련하고 믿을 만

다. "아운의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의 조각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많은 대원을 잃었지만 군사적인 이익도 얻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It lists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study options (On-Campus, On-Line, Blended), and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details. Contact information for both Main Campus (Wentzville, MO) and Washington DC Campus is provided.

#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파로 난민들 위기

### 허핑턴포스트,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로 유럽에 산재된 난민들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

지난 달 유럽 전역의 기온이 폭설과 함께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유럽의 기온이 급강하했다는 것은 단지 많은 사람이 따뜻한 음식을 더 자주 찾거나, 난방을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난민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유럽을 뒤덮은 한파로 난민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한다(Extreme Weather In Europe Endangers Most Vulnerable Refugees: They've already been living outdoors for months without any hope of successful relocation).

## 8명이 가난한 18억명과 같은 양의 부 소유

이번 한파로 그리스나 세르비아 등에 있던 난민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그들은 모두 망명신청을 기다리거나, 국경을 뚫고 서쪽으로 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텐트나 노후한 창고에는 난방은 물론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난민 문제를 놓고 대응에 미온적인 유럽을 지적해온 난민 지원단체들은 또다시 유럽 각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코디네이터인 스테파노 아르겐지아노는 "기상 이변으로 그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있



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유럽 각국의 정책이 초래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에서 오직 안전과 보호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지하고 괴롭히는 중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그리스의 여러 섬에 있는 캠프에 사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그리스 본토의 시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난민이 그리스 제도의 야외 캠프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는 지난 1월 11일, 그리스 정부가 레스보섬에 배를 정박시켜 몇 백명의 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지금 단지 보호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 유럽 대표인 에리나 엘리노 라이케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아직 충분히 고통받고 있지 않아서인가?"

세르비아에서는 최근 약 7,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한 신세로 묶여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그들 또한 야외캠프나 버려진 창고 등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혼자 여행을 하는 아이들은 처해진 증으로 사망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 소망 칼럼

###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장교회)

성도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사는 삶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삶, 성실하게 사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시37:3-6). 우리는 인생을 가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것

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한다. 인생길이 막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고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가?

첫째로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러버리듯 하나님께 맡겨 놓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 내 방법을 단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롬8:28).

둘째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고 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될 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모든 염려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섬에 맡겨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근심되는 문제를 날날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된다.

셋째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다. 우리 성도들은 원수가 있어도 안 되고 또 원수를 갚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성도들도 원수에게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를 갚고 싶은 충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갠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한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히10:30)고 말씀하셨다.

넷째로 성도는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바심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좋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nammicj@hanmail.net

## 알레포 전투 승리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 부상

(2면에서 계속)

소중한 실전 경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 들어오는 무기 보급로도 구축할 수 있었다. 헤즈볼라로선 무기 확보가 시리아 내전 개입의 주된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런 이득에는 대원을 잃는 것 이상의 대가가 따랐다. 헤즈볼라 대원들은 시리아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헤즈볼라 대원인 알리는 다히예의 아지트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콧방귀를 끼었다.

"우리와 시리아 정권은 자주 서로 총을 겨눈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시리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린 시리아에서 우리가 장악한 땅의 대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바샤르 알-아사드라는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해서 시리아에 있는 게 아니다. 시리아가 레바논을 침공하려 한다면 우린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싸우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우리의 이익을 지킬 뿐이다."

무슬림 분석가는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이 갑작스레 생긴 게 아니라고 말한다. "헤즈볼라의 군사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군의 능력이 떨어지며 정권 편에 선 민병대의 군기도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아사드 대통령과 시리아 정부군은 헤즈볼라의 시리아 주둔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알리의 반백 머리 친구도 동의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간판에 불과하다. 그는 실세가 아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쪽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헤즈볼라다."

레바논의 수니파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승리함으로써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그런 사실에 반감을 갖는다. 수니파 살라피주의자로 트리폴리의 바브-알-타바네 구역에서 소규모 민병대를 이끄는 무함마드(가명, 30대 중후반)는 시리아에 들어가 자바트 알누스라 편에 서서 싸웠으며 알레포에서도 얼마 동안 반군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린 시리아에 다시 돌아가 싸울 것이다. 이 잔인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말이다."

무함마드는 레바논의 수니파가 처한 곤경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런 상황을 헤즈볼라와 이란 탓으로 돌린다. "레바논의 수니파는 허약하고 열등한 집단으로 대우 받는다"고 그는 말했다. "헤즈볼라가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이 힘을 쓸 방법이 없다. 전쟁에서 아무도 수니파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란인과 헤즈볼라에 도둑당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레바논 안에서 같은 상황이다."

당연히 헤즈볼라는 무함마드 같은 레바논 수니파의 급진화를 우려한다.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빈번했다. 그런

공격으로 2015년 11월엔 헤즈볼라 대원 43명이 사망했다. 다히예의 헤즈볼라 지휘관은 그런 위협이 아직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가 다히예에서 자동차 폭탄을 설치하면 우리는 레바논 정부에 '직접 제거하든지 우리에게 맡기든지 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땐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 우린 레바논에서 공격을 시도하려던 테러리스트 수백 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체포해도 언제나 한두 명이 빠져나가갈 수 있다."

무함마드는 헤즈볼라의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레바논에서 우리는 세계가 놀랄 일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 반드시 재기할 것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수니파의 공격 위협을 받긴 하지만 시리아 내전을 통해 승승장구하면서 마침내 초점을 남쪽 이웃나라인 속적 이스라엘에 맞출 수 있게 됐다. 다히예의 헤즈볼라 지휘관은 "이스라엘에 대해선 우린 자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들을 지켜본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지 10년이 넘었다. 곧 다시 양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그 이래 헤즈볼라는 훨씬 나은 무기를 확보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즈볼라의 무장 수준과 최근 시리아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크게 우려한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500kg짜리 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GPS 유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러시아제 대전

차-대함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도 보유하고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병기고가 유럽연합(EU) 나토 회원국의 병기고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다히예의 헤즈볼라 지휘관은 이렇게 자랑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상대로 지상전을 감행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은 거미집보다 허약하다."

그런 허세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정면 대결을 원치 않는 듯하다. 2015년 1월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차량을 공습했다. 헤즈볼라는 대전차 미사일로 보복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즉시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11월 이스라엘은 또 다시 시리아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차량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엔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양측의 '상호 억지' 전략이 지속될 듯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헤즈볼라 대원인 알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006년부터 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며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었다. "헤즈볼라는 '신의 당'이다. 신이 우리 편이라는 뜻이다. 우린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성공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지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애플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이다. 인터넷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한번쯤 되새겨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는 1955년에 태어나 2011년 췌장암 때문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가 가진 암은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암이었다. 그런데 그는 수술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체에 칼을 대고 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월터 아이작슨에게 물었다. 그는 잡스와 이 문제를 놓고 수차례 대화를 한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는 수술대신 대체의학 같은 것을 의존했다고 한다. 9개월 후 잡스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강력한 권고를 해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그 몸이 이미 다 파진 뒤이었다. 잡스는 암을 수술 받을 때 까지도 그 암의 심각성을 경시했고 결국 수술을 늦춘 그 결정에 대해 후회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는 이렇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종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압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안 생명의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소리를 듣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빼돌려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중략)"

어떤 것이 가장 힘든 것일까? 그건 병적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해서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다.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 생명이야.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이웃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한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 왔는지 잘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잘못 살아온

인생인지 달려온 방향에 문제는 없었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속한 조직 공동체에서 내가 할 역할은 제대로 수행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언젠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아야 할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와 판단 그 자체가 힘든 것이다, 남이 나를 잘못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남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거나 잘하는 장점은 낮게 평가하고 단점이나 허물을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신을 평가할 때는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이나 허물은 축소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과거에 비쳐진 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2017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충성도 기도도 봉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기 전에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내 삶으로 실천해서 이 세상을 다 살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revpetergang@hotmail.com

## 푸/른/초/장

**송상철 목사**  
(새한교회 담임)



않고 허비한다면 얼마나 탄식할 일인가? 세월을 구속하여 새해에 승리하기 바란다.

4. 주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엡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거다. 배가 나뉘면 없이 마음대로 가면 표류하고, 자동차가 정지 우회전 좌회전 유턴신호를 무시하면 대형사고가 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신호도 주시고 빨간 신호도 주시고,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 신호도 주셔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스탑하고 유턴하게 하신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

내 뜻이 막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복이 될 때가 많다. 인생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다.

5. 성령충만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자제품의 건전지가 다 소모되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다. 성령충만이 지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성령충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생활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귀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기도생활로 호흡하면서 성령충만 받기 바란다. 성령충만을 지속하기 위해 예배와 찬송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전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는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6.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인생을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내 자유다.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고, 잘 믿는 것도 자유고 대충 믿는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전11:9,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주신만큼 다시 찾으시고, 받은 만큼 책임을 물으신다. 백세 무병장수도 귀한 하나님의 복이지만, 장수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많은 물질을 가진 것도 귀하지만, 받은 만큼 하나님이 책임 물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분도 맡은 자들에게 충성했는지를 심판하신다. 대가를 지불하고 세월을 구속하여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기 바란다.

기회를 구속하려면 핵심적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세상의 삶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때만 결정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청년만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허송세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월을 구속해야 한다.

(6면으로 계속)

# 세월을 구속하여 승리하라!

(엡5:15-18)

다. 우리에게 영원한 표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뛰지는 게 성공이 아니다. 때로는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사소한 일에 바빠서는 안 된다. 시간의 가치치를 잘해서 기도와 하나님 만나

월을 아끼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포르노처럼 방탕하며 악하게 살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구속해서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1.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 속에 내 생명이 담겨있다. 세월가면 내 생명

만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했더니 젊은 양반 여자가 당신네 예배당인 줄 아시우? 핀잔을 주고 소주를 사더니 같이 먹자고 권하더라. 그러면서 건강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앞으로 자기는 20년을 끄떡없이 살 수 있다는 장담하더라. 말이 안통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스프링 잠이 들었다. 한참 후에 철도공안원이 와서 옆자리에 있던 노인을 야야고 불었다.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갔다가 바람 쏘인다고 승강구에 나갔다 떨어져 죽사했단다. 하나님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

도 흘러가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거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을 살 동안 다음 자기의 인생을 계산해 보았더니 잠자는 시간 26년, 음식을 먹으며 보낸 시간 6년, 수업 깎는 시간(탈보 추정) 228일, 담배 피는 시간 1200일, 코푸는데 걸린 시간(축농증환자 추정) 80일, 화장실 사용시간(신문 읽음 추정) 2년, 그리고 나니 일한 시간은 21년 밖에 안 되고, 80년 인생에서 웃고 기뻐하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시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헬라어로 시간이란 말은 두 단어로 크로노스, 양적으로 측정되는 시간, 카이로스, 질적으로 측정하는 시간, 기회다. 16월의 세월은 카이로스다. 시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세월이라 번역했다.

카이로스란 단어가 생겨난 배경이 있다. 옛날에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면 선원들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바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밀물 때를 놓치면 다음 밀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행할 기회가 오면 물때를 놓치지 않듯이 잡으라는 거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한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며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되지 말기 바란다.

2. 모든 기회가 시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려 시골 가는 기차를 탔다. 먹을 것 한 보따리 들고 탄 노인과 동석하게 되어 전도하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노인이 아들자랑 딸자랑 줄줄이 늘어놓는다. 어르신 물질의 행복은 잠깐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갈 곳 준비되었어요? 물으니, 아파 이 양반 예수쟁이구만! 핀잔주면서 또 다시 자식자랑을 늘어놓는다. 아, 내 아들이 순천서 변호사야! 서울에도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왜 갈 곳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전도가 중단이 되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영감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거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유산시켜 놓친 거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귀한 기회를 담아주신다. 고후6:2,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라! 역사가 비홀드에게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평생 역사를 연구하는 중에 느낀 걸 한마디로 말씀 해주십시오. 비홀드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한 공의의 깃들이 돌아가고 있다. 악하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신다. 세상은 점점 선해지는데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

존 번연은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와 같다했다. 사람이 마취되면 이를 받고 팔다리를 자르며 수술해도 감각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구속해서 네 기회로 만들라는 거다. 뱅겔은 이 말이 약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고 해석했고, 요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 믿나? 질문하니 교회 다니지 않는단다. 그런데 어떻게 말세란 말을 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막장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자옥도 천국도 주님의 심판도 모르는 불신자가 세상 보고 말세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말세를 인식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 부목사(교육)님 청빙공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는 부목사(교육)님을 청빙코자 합니다

### 자격

- 1. 이민교회 경력(교육) 3년이상 되신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2.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소속 및 가입 가능하신 분
- 3.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설교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 2. 목사안수증명서
-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4. 추천서(미주지역 목회자 2명이상)
- 5. 최근 영어설교 영상 1회분 (DVD or Web-link)
- 6. 자기소개서(가족포함)
- \* 제출마감 : 2017년 2월 28 일
- \* 제출처 : 해외 한인장로회 안디옥교회
-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 e-mail : revpetergang@hotmail.com

## 해외 한인장로회 안디옥교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특별히 미국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 지난 8년간 기도했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몇 가지만 나눕니다.

대통령 취임 전야 행사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퍼졌다!

대통령 취임전야행사는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큰 역사적 획을 그었고 노예해방을 시켰던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인 링컨대통령 기념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야연설이 끝나자마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이 링컨대통령 기념관 전체를 웅장하게 가득 채워나가면서 불꽃놀이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가장 많은 교역자들의 말씀과 기도, God Bless America!!

하나님 경외! 성경말씀 경외!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역자들이 로널드 레이건 이후 가장 많이 초청되었으며, 특별히 그들 중에서 6명의 교역자들이 취임식 때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세 분이 대표적이었는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폴라 화이트(플로리다 뉴데스티니센터) 목사,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전미 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 콘퍼런스 회장)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역대 백성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펼치고 부통령선서를 하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선에 처음 나올 때부터 미국시민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한 부통령후보자였고, 지금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 미국에 지난 8년간 급속적으로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자 겸손히 그러나 강력히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In Jesus name we all Pray! 예

다"로 시작하여 말씀 중 "There is only one God, one mediator Jesus Christ"("오직 하나님은 한분이시고 중보자도 한분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취임식 때 초청된 음악가/연예인들-세상이 좋아하는 선정적이고 진보성향의 가수들보다는 온 가족들이 맘 놓고 들을 수 있는 가수들까지 초청

이번 대통령취임식이 오바마 때와 매우 다른 것은 사탄경배의 소문이 도는 선정적인 가수로 알려진 비운세(힐러리 대선을 위해 모금 공연까지 했었음) 같은 가수들이나 동성애, 성전환자, 극단주의 이슬람지지단체들보다는 '건강한 가정, 남녀간의 결혼, 생명의 소중함' 등 미국의

### 취임전야행사부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 선정적이고 진보성향 아닌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가수들 초청

가 시작되었고, 링컨기념관바깥까지 가득 채운 시민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전야 연설을 조금 요약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8개월 전에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단지 메신저였어요.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처한 현실에 우리 모두는 합쳐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원하죠. 오늘이 전야제도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의미 있게 링컨기념관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략) 우리가 시작한 것은 무브먼트(movement, 운동)이었죠. 아니,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생략) 이 '운동'은 매우 매우 특별한 운동이었죠. 우리는 이 나라를 연합시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죽도록 열심히 일하여 미국의 현 상황을 바꿔놓겠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고 미국이 수년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것입니다..."

기도를 나눴고, 그 외에 케톨릭에서 2명, 유대교 랍비가 한명 참석하여 총 6명입니다. 그동안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프랭크 린 그레함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동안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하는 목사"라는 이유로 처음엔 백악관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다가 결국은 거절 통보를 받고 백악관 밖에서 말씀과 기도를 선포해야 했던 적도 있었으며, 그 외의 목사들 역시 반동성애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동안 반기지 않았던 사역자들입니다.

또 다른 개신교 목사 중 한분은 TV 복음전도자인 폴라 화이트 목사인데,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톰슨 박사는 폴라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를 전도한 목회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으며 트럼프의 영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가 인용한 성경구절들!

트럼프 대통령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인용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

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취임식이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취임식축하를 위해 온 개신교 목님들이 때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백악관에서 들어보기 힘든 일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오바마는 오히려 백악관에서 수백 년 전통이었던 국가기도(National Prayer)모임까지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꼭 기도회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아멘"만 허락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전도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유였고, 그런 것을 오바마정부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소수를 위한 다수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강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트럼프를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취임식에 나선 대표 기도자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마친 것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능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 이번 취임식의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잊지 못할 프랭크 목사의 축사 말씀 중에 취임식 날 비가 오는 것을 언급하며 "비는 성경적으로 축복이

전통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미대통령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과 미국시민들 앞에서의 경건하고도 엄숙한 선서가 주된 목적의 행사입니다.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자리인데,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의 타락 속에서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직 관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고자 하는 새롭게 세워진 트럼프와 펜스정부와 그들의 가족들이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아닌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이끌어 전도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참 생명이 있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좋은 실례가 없는지요?  
-케빈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하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은 다양하며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주의, 독선주의라고 말할지 모르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음이라(행4:12)" 주위의 친구에게 먼저 빛과 소금의 선한 행실로 간접전도를 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소개된 중국의 석학 잉어당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때 기독교를 떠났다가 "당자가 돌아옵니다" 하고 다시 기독교

###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어

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잉어당 선생은 원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장학금을 받으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아쉬운 것이 없자 그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잉어당 하면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자가 돌아옵니다 하고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묻자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한 유교를 많이 연구하고 불교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쫓쫓 전생애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업보요 업보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갑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로 보니 그 종교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달라고 외치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기어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공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놈 네가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단만 치고 갑니다. 유교는 책망을 잘하는 종교입니다."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달라고 고향을 질렀더니 지나가는 한분이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달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을 매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 밖에는 없는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살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여기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을 하신 참 구세주입니다.

## 동역하실 사역자를 찾습니다 E.M Pastor Wanted

We are seeking candidates to fill part-time or full-time position to serve in our youth ministry. We welcome all applicants who have God's calling, have a gift in preaching, teaching, organizing & relationship building. Must be fluent English and some Korean.

Contact: Kwanghee Rhee, Pastor  
(408)267-2345, (408)500-9512

Send Resume to:  
E-mail: kwangheerhee@hotmail.com  
past.andrew@gmail.com

### 실리콘밸리장로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이광희 목사 / Andrew Lee, Pastor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Tel.(408)267-2345 / www.svkpc.org

##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의 분량에 걸친 1년 구독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후이(Hui)



9백만이 넘는 후이족은 중국의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널리 퍼진 민족이다. 그들은 거의 모든 도시와 지방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남서 지역에 많이 산다. 그 지역들 가운데 어느 한 도시에서 다수그룹을 이루진 않지만, 그들은 중국 도처에서 문화적, 정치적으로 약화해왔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북서쪽의 많은

지역들이 무슬림 영토로 간주된다. 후이족은 7-14세기에 걸쳐 중국에 온 상인, 군인, 공직자 신분의 무슬림들이 중국 한족 여성과 결혼해 정착하면서 생겨났다. 중국의 다른 무슬림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약간의 아랍어와 페르시아 어휘들이 섞인 거주 지역의 중국 방언을 사용한다. 후이족은 중국사회에 아주 동화돼 있어서 음식이나 종교적인 면을 제외하면 한족과 거의 구분할 수 없다.

삶의 모습

후이족은 유명한 상인들이다. 사

실 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것도 유리한 사업들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순수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이족은 항상 사회적으로 분리돼 지내왔다. 북 중국의 농촌 지역에 있는 후이족은 밭에서 밀과 쌀을 재배하고 밭면 좀 더 멀리 남부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하며 쌀을 경작한다. 일부는 소규모 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양과 소를 기르거나 야채들을 키워 소득을 얻는다. 도시에 사는 후이족은 대부분 정부 고용인으로써 주거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비 노동자나 공장 근로자들이다. 다른 이들은 가게 운영을 하거나 정육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정육점에서는 여전히 "할랄(halal)"을 판매하는데 이는 회교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잡은 동물의 고기이다. 후이족의 식생활은 쌀, 밀가루,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이 주된 음식들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말, 당나귀, 노새와 모든 야생 짐승들이 식용으로는 금기시 돼있다. 1949년 사회주의 개혁 이후 조혼제도, 정략결혼, 일부다처등과 같은 후이족의 전통들이 금지되었다. 오늘 날 후이족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이혼과 상속에 대한 권한이 있다. 정부는 2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을 장려하며 한 부부에 한 자녀 개념의 가족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무슬림 관습에 따라 후이족 여성은 후이족 외의 남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후이족 남자는 한족(Han)이나 후이족의 다른 민족 여성과도 이슬람을 기꺼이 따르기만 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신앙 8천1백만 후이족의 90%가 무슬

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슬람을 "후이족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후이족 사이에서도 매우 다른 이슬람 분파들이 있다. 구(舊) 분파는 중국 문화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로 인해 생겨났고 신(新) 분파는 중국 이슬람의 순수성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발전했다. 그러나 모순인 것은 후이족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다. 북서쪽 중국의 후이족은 매우 보수적인 반면 북동쪽은 좀 더 자유로운 편이어서 고향에서 떠나오게 되면 담배와 술을 하고 돼지고기도 먹는다. 무엇보다도 후이족들은 세계에서 가장 덜 급진적인 무슬림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후이족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은 신앙심의 깊이가 결여된 그들에게 매우 실망하곤 한다. 모든 한족이 죽은 후 회장을 해

야만 하는데 반해 중국 정부는 후이족에게 이슬람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행해지는 산아 제한정책에서도 후이족은 일부 면제받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 정부는 이슬람에 극명하게 호의를 보인다. 모스크(이슬람사원)은 사유 재산법과 주택 세금에 면제되고 있으며 몇몇 오래된 모스크는 정부자금으로 개조됐다. 정부는 또한 종교 지도자와 새로운 "아홍(ahongs)"의 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중국 무슬림은 개종하면 박해가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꺼려한다. 후이족을 위한 기독교 방송과 자료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들 가운데 알려진 기독교인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 종교에도 사드 보복? 한국 선교사 무더기 추방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선교사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집안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공간에 체포됐다. 중국에서 금지하는 선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체포된 것은 A선교사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전체가 불려가 밤샘조사를 받았다. 공간들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옥박질됐다.

조사를 마친 공간은 A선교사 가족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그는 체포된 지 8일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다. 15년 간 기도와 눈물을 뿌렸던 선교 사역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17가정이 최근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복수의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한 단체는 금명간 3가정이 추가로 출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특별한 법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공간들에 의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조사를 받고 황급히 사역을 떠나야 했다. 대부분 10년 이상 활동해온 장기 사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통상적인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B선교단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 당하거나 비자 연장이 취소되는 일은 매년 있었으나 최근엔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며 "공간들이 가족 전체를 일컫는 조사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 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추방된 공식 혐의는 외국인에 의한 포교활동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불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C선교단체 관계자도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몇 차례 공간들에게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철저히 강제 당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D선교사는 "알마 전 친분이 있는 중국 공간에게 들었"다며 "이번 조사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봐줄 수 있는데 왜 위층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선교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갑자기 강경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시도 중 하나라면 앞으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따른 상담과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주 정도는 외부와 접촉을 끊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선교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선교단체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이들을 재 파송할 계획이다. 중국 회교들이 거주하는 제3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C선교단체는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교체할 것, 모임을 갖지 말 것, 강제 출국에 대비해 짐을 싸놓을 것 등 위기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공지했다.

중국은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10대 파송국 중 하나다. 한국교회는 1913년 최초로 중국 산둥성에 해외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트럼프, "무슬림 7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격 금지시켰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이 신청한 미국 비자발급은 중단됐으며, 미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억류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했으며, 스위스 토티드 캐나다 총리와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톨텐 수반은 미국행을 거부당한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7개국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다.

이들 국가 출신 국민들은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금지됐으며, 입국 금지대상국이 아닌 나라의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행정명령이 발효된 직후 카이로에서 뉴욕행 이집트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이라크인 푸아드 사레프(51)씨 가족 5명은 탑승을 거부당했다. 사레프씨는 "집도, 차도, 가구도 다 팔고, 나와 아내, 직장도 그만뒀다"며 "특별이민비자로 테네시주 내 슈빌에서 정착하려던 계획이었는데 트럼프가 우리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2명은 공항에 억류됐다. 이중 한 명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등에서 통역·엔지니어로 일한 인물로 판명 나 일단 억류에서 풀려났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란인 3명도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항공사들의 탑승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우려가 있는 7명의 승객에 대해 탑승 중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중인 한 이란 학생은 "터키항 공에서 구매한 2월 4일 출발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시리아 난민 2만7000여 명의 미국행도 사실상 좌절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 출신의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고, 이민자 가정 출신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란 외무부는 "불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미국의 모욕적인 행정명령에 대응해 이란도 미국인의 입국을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예멘 정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정책에 유럽이 대항하자고 호소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박해와 테러, 전쟁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을 종교와 관계없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의 스톨텐 수반도 트뤼도 총리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면서 "스코틀랜드로 오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7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미국 법원,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한 본국송환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10년간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겟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 통역사 출신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는 19시간 동안 구금된 뒤 풀려나 기자들에게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했나. 그들은 내게 수갑을 채웠다.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인들을 접촉했는지 아느냐"며 울먹였다.

ACLU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원 결정이 이어졌다. 버지니아 주 연방법원은 워싱턴필레쓰 국제공항에 구금된 영주권자 수십 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권과 일주일간 강제 추방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 연방법원은 구급이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 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이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에 이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장은 지난 28일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 행정명령에 '무슬림 금지법'(Muslim ba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합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묻는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보수적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리포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 57%는 무슬림 7개국 출신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 찬반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82%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59%가 이번 조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는 3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스무센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에서 테러리즘 수출 경력이 있는 지역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주장을 59%가 지지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연방 정부가 국내 이슬람 테러 위험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오직 16%만이 미국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외교관 등 정부 관리들까지 반기를 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한반도대행 통화"로 "위협에 공동방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와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양국의 공동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역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 등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ironclad commitment)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통화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의 방한 계획이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며 미국·한국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어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내달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할 예정이다. 그의 방한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동맹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방위비를 적게 부담한다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매티스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면에서 계속) 꽃은 시들과 모든 육체는 풀의 꽃 같지만 하나님만큼은 영원하다. 말씀은 반드시 이뤄지고 영원하다. 말씀은 나를 교훈해서 실패하지 않게 해준다. 말씀은 조영 능력을 가지고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추줌

으로 세월허송 방황하지 않게 해준다. 말씀에는 창조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

력이다. 기도도 성령으로 세월을 구속해 야한다. 1907년 1월 평양장대천교회에 1천5백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영향력이 한국 전체로 퍼져서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세례된 교회가 셀 수 없이 많

았다. 역사가들은 선교사 100명이 100년 동안 한 일보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로 일년동안 일어난 일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일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연합으로 세월을 구속할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 흘러가는 세월은 영원한 사랑으로만 구속할 수 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복음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세

월을 구속할 수 있다. 흘러가는 세월을 확실하게 구속해서 영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jcsongsaeahn@hotmail.com

미래 - 개혁의 목적

“개혁”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일단 개혁을 시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시정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되풀이를 하면서 익숙해져있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하던 대상을 잘 길러진 비판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씩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요즈음 정치, 사회, 직장, 기관은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결국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미래라는 시점에서 현재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미래를 맞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상태는 미흡하나, 미래에는 반드시 개선될 것을 믿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개혁을 단행한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노력의 열매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거나,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이 시도해보려는 마음은 결코 개혁을 불러올 수 없다.

개혁은 미래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다. 남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힘 있게 달려 나가는 것이다. 개혁의 원동력은 미래로부터 얻는 것이다. 개혁자는 쉽게 지지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 달릴 뿐이다.

현재의 상태가 절망적일수록 더욱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개혁”의 키워드가 “변화”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개혁은 새 땅을 개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상태로 세워져 있는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해서 멋진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개혁도 미래 주도형이 되어야 할까? 그렇다. 개혁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원리와 유사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뚜렷한 목적이 없는 개혁은 없다. 교회 개혁이 지닌 독특성은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개혁을 능히

이루게 하는 힘은 현실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나 때서운 비판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자들이 주관하는 영적 개혁이며 신앙 개혁이다.

니고, 그 일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라며 책임을 다하려 한다. 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떻게 그 개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길을

의 방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목적과 열정을 공유한다고 하여도, 방법론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개혁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라면

는 것이 아니다. 특히 “나의 방법”이란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며 성취감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와 말씀대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역사적

감탄하셨다. 우리는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이후의 상태로 인해 아파하시는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두 눈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값으로 주신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져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염려하시는 그 분의 아픔에 동참하여야 한다.

교회의 개혁은 그 자체가 생동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일을 맡은 자들은 개혁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개혁이 하나님의 일이기, 개혁의 현장은 곧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 라는 고민과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녔다면 개혁의 현장에서 더욱 담대하여질 수 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그가 기독교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개혁의 현장에서 지냈던 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는 결코 남다른 감성장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었다. 그는 개혁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미래를 맡겼다.

그의 마음은 비교적 단순했다. 그의 바라보았던 교회의 현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 달랐다. 16세기 교회의 개혁은 한 개혁자가 하나님께 드린 한순간의 헌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운동의 형태로 번져갔다. 개혁자들의 배경과 관심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개혁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개혁자들은 “개혁이 필요한 교회”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너머로 보이는 “개혁된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라는 시제를 무시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끄시며 현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개혁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개혁의 현장에 있는 모두는 자신의 역할이 “조연”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조연의 역할은 “주연”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2)



조진모 목사 (펠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과거 - 개혁의 내용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변화되는 세상에 민감해야 한다.

선택해도 산 정상에만 오를 수 있다는 식의 이론은 도리어 개혁 정신을 지닌 자들을 혼동에 빠지게 한다.

“개혁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

아에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개혁을 시도한 결과, 끊임 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성

흔적을 남긴 시간을 가리킨 것이다. 교회 개혁은 반드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지시를 받아 행해져야 한다.

현재 - 개혁의 현장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 ... “개혁” 키워드는 “변화”, 교회 개혁도 미래 주도형이어야 개혁자의 정체성은 개혁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개혁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 제시하는 성경의 지시 받아 행해져야

지속적으로 변하는 삶의 현실과 상황에서 생기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는 것은 일단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감각조차 없거나,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피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

혁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거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주로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자신의 생각을 쉽게 굽히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자에게 “나의 방식”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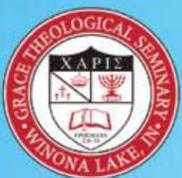
개혁은 변화를 동반한다. 삶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방식”은 매우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나의 방식”은 또 다른 “나

경이 지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지시하셨다. 그가 교회의 청사진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이어져가고 만들어져 가져 간다. 교회 개혁을 위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현재 변형되고 망가진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내용이다.

교회의 개혁은 미래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미래를 향해 달려가

개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교회 개혁의 모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개혁이 되었으니, 이제 개혁을 중단하여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개혁의 열매가 있다면, 더욱 개혁을 이루기 위해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개혁은 개인의 소신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뻐하셨던 후,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GRACE THEOLOGICAL SEMINARY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리더십 코멘터리 (3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리더의 책임감 바이블스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책임감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장밋빛 미래와 하루를 견디기 힘든 오늘이 있다. 미래의 소망과 오늘의 현실은 인간에게 모두 중요한 대상이다. 사람의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좌뇌는 현실중심적이다. 우뇌형의 인간은 미래와 가능성을 멀리 내다보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변화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좌뇌형의 인간은 현실과 일상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커피를 갈아서 금을 캔 사람, 천년의 커피 역사를 뒤집는

모습일까? 영적리더는 교회지도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질, 낡고 관료적인 시스템, 교회의 재정상태, 동료들과의 관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리더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기본

인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Ow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문제도 해답도 모두 내게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비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탁월한 리더는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된 리더십 마인드를 가지고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Understand other's viewpoints: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심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리더는 독선적인 태도로 문제와 사람을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Negotiate solutions that work for everyone: 협상으로 윈-윈 전략을 찾아라. 흑백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인간관계란 홀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통해 부딪치고 이해하고 융합하면서 문제해결을 하고 조직원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리더의 임무이다.

주도적인 리더가 되라(Be Proactive Leader) 주도성은 실존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오늘의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비기독교적 가치관과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영적리더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많은 비즈니스맨, CEO, 학생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영적리더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 중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모르는 채 타협하고 말 것인가? 하이스쿨 학생이 매 주말마다 특강을 하겠다고 불러내는 학교의 정책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것인가? 탁월한 리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동심원을 파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아름다운 믿음의 개인 요나단(1)

요나단은 참으로 난 사람입니다. 자기 목에 힘주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있는 아비 사울과는 어찌 그리 닮은 곳이 없는지요? 도무지 누구에게 믿음을 전수받아 그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소유했는지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왕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비와는 전혀 다르게 권력에는 소가 닭 보듯 관심이 없습니다. 큰 애가 야단맞는 것을 보면 야단맞는 본인보다 곁에서 바라보던 작은 애가 웃기를 여미고 행동을 바로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야단맞는 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아닌 순종임을 배웠고... 그래도 나오면 번번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힘인 것을 배웠나 봅니다. 아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을 요나단이 배웠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안녕입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감히 나설 줄도 압니다.

그렇게 바락까지 내려간 전세를 뒤엎고 승리하니 교만한 사울이 이에서 족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주위 나라를 쳐들어가고 사기충천해 승리합니다. 자연 블레셋 나라가 긴장할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저들이 힘 다해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게 되고 저들이 자랑하는 거구 용사 골리앗이 40주야를 무시는 폭언으로 이스라엘 전 군대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왜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그 모든 모욕의 폭언을 참고 견디고 있었는지? 아마도 아비가 나가지 못하도록 금꺾음을 내렸던지? 앉아 있지나 얼마나 그 속이 탔으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몰래로 쳐 죽이고 왕 앞에서 자기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뻐하였는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은 다 건네줍니다. 자신의 옷이며 군복, 칼, 활, 띠를 줌은 자신의 것인 왕위까지도 다윗이 더 자격이 있어 보이면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순수함을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도 탐하는 마땅히 마땅히 내 것인 것을 주저 없이 내놓는 것은 진정한 저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것을 입증합니다. 너무도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감동의 인격입니다. 모두가 앞장서고 높이 여김을 받는 것을 그 자리에 가만본색을 드러내려는 아무리 뜯어봐도 주님을 많이 닮은 요나단은 천국에서 해갈이 빛나는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순전한 사랑을 받은 다윗은 행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주는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인간입니다. heenlee55@hanmail.net

## 문제를 기회로 보고 책임감 있는 주도적 행동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엔 최선을 다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엔 겸손히 자신의 한계 인정 지속적인 자기 쇄신으로 단련시켜 균형된 삶 유지

성공신화를 이룩한 경영의 천재, 스타벅스 커피회사를 재창조해낸 사람인 하워드 쉴츠는 우뇌형의 사람이었다. 남달리 책임감이 강한 그는 암울한 현재를 넘어서 화려한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

참된 리더십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 (Responsibility)이다. '책임'이라는 말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로 정의할 수 있다. 리더는 조직을 운영할 때 그들이 합의한 목표와 방향대로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 철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바로 책임감인데, 비전에 대한 책임감,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동료와 추종자들에 대한 책임감,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리더의 책임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의 중요성은 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리더의 리더십은 교회의 존재 기반이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주는 영적리더는 어떤

으로 한다.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영적리더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조직 그리고 교회에 닦친 위기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목적을 올바르게 이루고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Leadership Solution> 리더가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감은 무엇인가?

>Acknowledge the situation: 상황을 인정하라. 기업이나 조직사회 또는 교회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리더는 갑작스런 불청객의 방문에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빨리 수긍하고 인정해야 한다. >Courageously face difficulties: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라.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도피하거나 쉽게 반대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Communicate with positive language: 긍정적인 말을 하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감정적

>Take on new responsibilities: 새로운 책임을 기꺼이 떠맡아라. 일이 전문화되고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책임이 늘어난다.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과 늘어나는 책임감은 리더를 압박시키고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리더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세련된 매너와 절제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Act, don't simply react: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행동하라. 실행하고 실천하라. 헛웃고 같이 생각만 해선 리더의 중직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 때론 돈키호테처럼 과감히 행동하고 성취를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이다.

>Initiate thoughtful and deliberate problem solving: 깊이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라. >Take pride in your results: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있는 리더이다. 남의 탓만 하는 무기력증에서 탈피하라. 책임회피형 인간에서 '책임지는 인간'으로 거듭나라. 당신이 올바른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인정해야 한다. 특별히 영적리더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리더십의 원리를 연구하여 실천수행하는 리더, 진취적인 리더 그리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끊임없이 쇄신하는 변혁적 리더가 되라

넓은 톱날로는 나무를 벨 수 없듯이 리더의 임무 수행은 지속적인 자기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더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분야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단련해서 균형된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심신의 피로 때문에 생산성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근본적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변화를 추구하는 리더가 되라. 넓은 조직을 이끌어 내고 과감히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여, 끊임없이 쇄신하는 변혁적 리더가 되라.

sondongwo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성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박스카운티성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b>보스턴성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개혁기념: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럿성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오전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부흥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okchurch.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org	<b>앵커리지벨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bethelchurch.org/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42-0288, Fax: (21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킬린우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otacoma.org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원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새 회장에 이종만 목사

제 27회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달리에 바다교회에서 열려 회장 및 임원진이 선출됐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종만 목사 △부회장 이순모 목사 △총무 박형우 목사 △서기 이상현 목사 △회계 최혁진 목사. 사진은 새 임원진들.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향한 간담회에서 미주한인재단 LA지부 이병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좋은 리더십, 2세들에게 전수한다 미주한인재단 간담회, 발전과 한인사회 나아갈 길 논의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향한 간담회가 1월 27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서영진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자원위원장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의 축사와 자원위원장 송병주 목사(선한창지기교회)가 '이민역사에 대한 발자취'라는 주제 강의를 했으며 이기철 LA총영사가 축사를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회장이 인사말과 내빈소개를 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우리 조국인 한국에 대해 알리는 것에 노력하겠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80개국 중 유럽 수준의 경제/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이다.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의 발전상은 차세대 교육 자료에 좋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위한 길과 한인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만 회장은 "미주한인재단이 좋은 리더십을 끌어들이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격려하며 일하는 재단이 돼 2세들에게 미주한인재단의 정신이 잘 전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팔도연합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이민 선조가 일찍이 정립해놓은 정신 즉 소위 도산정신 등을 다시 재해석하고 실천한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인사회의 리더십과 LA를 아우르고 미주를 관통하고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미주한인사회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LA미주한인재단)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 감사음악회



LA기윤실주최 기자간담회가 뉴서우호텔에서 열렸다

### LA기윤실, 교계기자 초청 신년 간담회 "목회자의 지적·도덕적·영적 자질이 가장 큰 문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이 2017년 새해를 맞아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등 헌법 위반 △개교회주의와 교인 빼오기 및 교회들의 과잉경쟁 △교회 밖 사회에 대한 무관심 △직분의 감투화 △교회 내의 부유층·지식층 우대 등이었다.

26일 오후 뉴서우호텔 내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기독교 신문기자들과 일간지 종교부 기자 등 8명의 언론인들과 LA기윤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윤실 관계자는 "이민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자질 문제이다. 이는 목사안수과정의 비정상화로 인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며 이는 신학교나 립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문규 신임대표는 "LA기윤실에 대한 언론계의 평가와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어떻게 하면 기윤실이 기독교신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여러 언론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가주교회 등 교계단체들이 수년간 쌓여온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교계연합단체 문제를 이슈화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교회운동을 펼치는 기윤실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조주현 간사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LA기윤실은 한인 이민교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13개 목록으로 작성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편 LA기윤실은 오는 5월 18일 마야방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경찰위원회 및 LA 세리프국과 함께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아래로부터 기독교를 개혁하는 건강교회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언론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설문조사 결과 8명의 기자 모두 △목회자의 지적·도덕적·영적 자질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 다음 5명이 △목사안수 과정의 비정상화, 3명이 △교단 교회 연합단체의 비윤리성과 신학교의 난립을 꼽았다.

(박준호 기자)

### 2월 18일 미주평안교회 "우리함께 걸어..." 출판 감사음악회

송정영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저서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 감사 음악회가 오는 2월 18일(토)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송정영 목사는 "이민목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남기는 것을 제안 받았다. 그것이 이번에 출판된 책이다"라고 말하며 "목회와 복음 방송 시장시절 그리고 총장활동 등 은퇴 후 활동에 대해 추가해서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은 이민목회 활동할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해 썼다"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민목회를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출판기념 음악회로 갖게 된다.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이 주관하고,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으로 음악회 함께하게 됐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 소프라노 신선미, 라크마합창단, 미주평안교회 성가대, 정장균 목사, OCYC 챔버콰이어가 출연한다.

문의: (323)574-2474 노형건 선교사 (박준호 기자)

### 기도/칼럼

###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새해의 한달이 지나고 있다. 한달 동안 무얼 했다? 자기반성을 해본다. 년 초에 결심한 바대로 실천을 했는가? 꿈쩍이 본다. 마음만큼 삶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본다. 착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결심을 하며, 마음을 추슬러본다.

올해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한 해가 되고 싶다. 자신에 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이다. 순서가 있다. 우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도 바울의 자기부인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높였다. 출신과 배경을 자랑했다. 교만했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180도 바뀌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높였다.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다. 시종일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새해 첫날 받은 말씀이 겸손의 은혜이다. 겸손은 오직 예수의 겸손밖에 없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 자기부인에서 출발이 된다. '주여,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이메일: bible66@gmail.com

### "건강한 대화 소통법" 주제 LA카운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카운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건강한 대화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31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소를 치우는 게 낫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아무리 어린이와 대화할 때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영 선생은 "소통은 보낸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호/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확립하고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라 소개했다.

그는 "대화할 때 중요한건 경청이다. 들을 때 자세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등 상대방에 대해 듣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대화방법은 훈련을 통해야 변할 수 있다. 한인들은 문화상 감정표현을 억제한다. 하지만 감정표현을 할 수 있어야 감정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온듯하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로 세팅되는 소동이 어려워진다. 갈등은 반응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평소 무시하는 제스처는 대화가 어렵게 한다. 대화할 때 주변방해요

이어서 건강한 대화소통법에 대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삼일절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실용(말-교): 오전 5:30 말씀실용(말-교): 오전 6:30 EM, 대안학: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대문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월 일 예배: 오전 1:2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7:00, 8:00(영성)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팩스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Sanchez St., #B L.A., CA 90033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lim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복(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버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나인타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절은이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제: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새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b>주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10)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요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calsamsungchur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stev.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청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www.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KUMC 2017 전국 지도자 대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UMC) 2017 전국 지도자 대회가 5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하며 올해는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눠 개최한다. 대회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교회 지도력"(Building Leadership in Globalism)이다. 참가신청은 웹사이트(www.koreanumc.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www.kaaumc.org/register

뉴욕사모합창단 단원 모집

뉴욕사모합창단(단장 김경진 사모)이 단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모로, 양노원 사역, 해외 선교지 찬양 선교사역, 고국방문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뉴욕초대교회 소성전(210-10 Horace Harding Expwy)에서 열린다. 지원자는 이태영 씨.

▲문의: (347)256-6147

운동주 72주기 추모공연

뉴욕시도가 주관하는 2017년 운동주 72주기 추모공연이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뉴욕에서 열린다.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2월 13일(월) 오후 8시 한국 서울 CCM아지트 △16일(목) 오후 4시와 8시 중국 톈정 명동교회, 톈정중 △19일(주) 오후 2시30분 일본 릿쿄대 추모행사 △26일(주) 오후 7시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문의: www.snowingmap.com

사역자 청빙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벨연교회가 EM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한다. 자격은 목회 소명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하고 정규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과정 중에 있으며 교육부 사역에 은사와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1부, 자기 소개서 1부가 필요하며 이메일(soo5184@dau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되는 대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홈페이지: www.bkpcdenver.org

▲문의: (303)423-1392

사역자 청빙

뉴욕초대교회(미국장로교/PCUSA, 담임 김승희 목사)가 아동부 및 방과후학교 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정규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영어선교와 성경공부,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소명 및 비전, 가족사진포함, 가족수 포함), 정규 신학교 및 기타 학력증명서, 원고선교 1편, 추천서 2매. 이메일nycdchurch@yahoo.com(행정목사).

▲문의: (347)502-2571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 종료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62기)이 종료됐다. 강사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는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100분) 스마트폰 구조 설명을 비롯해 전화, 메시지, 사진, 영상, 카톡, 알람 등 스마트폰의 기초를 강의했다.

다음단계인 중급반(63기)은 2월 4일(토)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100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중급반은 초급반을 수료했거나 스마트폰으로 선교에 활용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한편 씨존은 초급반과 중급, 고 급반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집중강의 클래스를 개설한다. 1대1로 개인교습하며 60분 단위로 진행한다.

▲문의: (718)414-4848. (기사제공: 씨존)

“바른 자아상 갖고 멋진 인생을!”

동부개혁장신 2017년 개강 부흥회

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2017년 개강 부흥회가 지난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양승관에서 열렸다.

“바른 자아상을 갖고 멋진 인생을!”이라는 주제로 3일간 고택원 목사(KAPC총회장, 새한장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첫날 집회는 학생회장 강기봉 목사 인도로 기도 동문회장 정기태 목

사, 성경봉독 김정민 학우, 장학증서 교훈패 수여 장영춘 학장, 찬양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 찬양대, 말씀선교로 이어졌다.

고택원 목사는 “바른 자아상을 갖고 멋진 인생을”(창1:26-2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바른 자아상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둘째, 복을 받은 존재이고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열심히 충성하라”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둘째 날 “부름 받은 자

여, 보냄을 받은 자여”(막5:7-13),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드린 셋째 날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9-10)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31일에는 저녁집회를 마치고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2017년 개강 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에서 신서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라”

뉴욕영안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지난 29일 오후 5시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드린 감사예배에서 김경열 목사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교회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회이전과 함께 성령충만한 영성회복으로 훈련된 성도들과 세상을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인 커뮤니티 교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안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찬양 유진웅 교수, 설교 신서균 목사, 헌금송 신우철 목

사, 헌금기도 정명희 목사, 축사 김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축가 지인식 목사 이정은 사모, 권번 김용결 신부, 축도 합성은 목사, 만찬기도 지교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열 목사의 스승으로 뉴욕을 방문 중인 신서균 목사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고 거룩하심이라는 바탕을 주는 것”이라며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인 동시에 진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본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영안교회는 서울 영안교회(담임 양병희 목사)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4월 지교회로 설립됐다.

새 예배당 주소는 59-26 키세나 블러바드이며 연락처는 (917)963-9356.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조직 구성·전 후원아동명단 발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25일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구 조직표와 전체 후원아동 명단이 발표됐다.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조상숙 목사, 설교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갈6:8-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물질만능의 이 시대에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한다. 재물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중요하다”며 “모든 일을 할 때 생명이 있는가가 문제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내기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성령과의 교통,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심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또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해야 한다. 낙심할 때가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을 위해 △선교사(콜롬비아, 페루,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들을 위해 제목으로 한 뒤 △한국과 미국, 아픈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개최기도 후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전임회장 전희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상열 회장은 이사회 구성 및 각 부과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조직표에 따라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 △상임고문 황동의 목사 △감사 이종명 목사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 △서기 박이스라엘 목사 △회계 권캐더린 목사를 발표했다. 또 △아동정보 및 사이트 관리부를 박진하 목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리된 후원아동 상황이 보고됐으며 현재 중남미를 중심으로 173명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 아동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후원자 확인절차를 거쳐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2월 정기 모임까지 웹사이트가 오픈되며, 아이디를 받으면 교회별 혹은 개인별로 후원아동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구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내실을 다지는 일환이다.

모임은 황동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8일 오후 2시반, 플라싱에 위치한 유니언플라자 케어센터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과 다민족 어르신 100여 명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for churches like 뉴욕갯세미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etc.



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함께 기도하며 동역...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되자” 제42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제 42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1월 29일 오후 7시30분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운 목사)에서 개최됐다.

수석부회장 김용식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증경회장 손수웅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정우 목사(우림교회)가 ‘최선의 협력자’(호10: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해경 권사가 특송했으며 이임회장 이창건 장로가 이임사를, 신임회장 한철수 장로가 취임사를 전했다.

한철수 장로는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가 돼 앞으로 장로협의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협의

회가 되도록 늘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특별히 취임행사를 위해 축하 사절로 대평양을 건너온 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회장 백형수 장로님 내외분과 총무 이종식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와 백형수 장로(한국장로총연합회 회장)가 축사하고 이창건 목사(우니온교회 원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김정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더텐트가 주최한 설특집콘서트가 라이프보건센터에서 열렸다

### 더텐트 라이프보건센터서 설맞이 특별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설맞이 특별공연을 라이프보건센터(672 S Carondelet St)에서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고르세슬단(장장 이서령)의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조현주 집사가 ‘눈과 별’, 소프라노 어유경 씨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꽃구름 속에’를 불렀으며 소프라노 김은혜 씨가 ‘O mio babbino caro’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베이스 이사호 씨가 ‘벚노래’를 또 김은혜 씨와 이사호 씨가 듀엣으로 오페라 돈 조바니의 ‘La ci darem la mano’를 불렀다.

이어 서정적인 감성의 보컬리스트 이민우 전도사가 출연해 ‘하룻밤’, ‘이별의 종착역’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불렀다.

이날 100여명의 노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연에서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시종일관 흐

뒀한 미소를 보이고, 공연자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때로는 옛 생각에 잠겨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라이프보건센터에 다니는 한 할머니는 “모듬북과 가곡 등 클래식 무대, 그리고 기타를 치며 부르는 대중음악 등 수준 높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으며 베이스 이사호 씨의 노래 소리에 “귀가 뚫렸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 LA 한인타운 내 거주영아학교 주차장에서 첫 번째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마당에서 3주년 겸 34회 콘서트를 가졌던 더텐트는 2017년부터는 기존 공연 외 양로보건센터를 비롯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 “커뮤니티와 감동의 무대 나누고자 마련”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2017 신년음악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에 권사) 주최 2017 신년음악회가 1월 29일 오후 6시 USC Joyce J. Cammilleri Hall에서 열렸다.

본 협회 부회장 이재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신년음악회는 Peniel여성중창단(지휘 김경희), 바리톤 장상근 전도사, 피아니스트 이동운 씨, 바이올린 피터권 씨, 오보에 권유리 씨, 피아노 김경미 씨의 3중주, 테너 전승철, 피아니스트 임태연과 안정희의 피아노 듀엣 연주, 소프라노 신선미 씨, 그리고 칸

투스 남성중창단(지휘 장상근 전도사)가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본 협회 회장 오성에 권사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때에 탁월한 기량과 음악성을 지닌 음악인들이 함께 감동의 무대를 커뮤니티에 나누고자 신년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운 저녁이 될 것을 소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2017 신년음악회에서 출연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2017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소사이어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소망소사이어티...핵심가치, 자세 등 설명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27일 오전 10시에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2017년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유분자 이사장이 한 인커뮤니티에는 생소했던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소망소사이어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주제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작사 작곡한 주혜미 사역국장은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 주제를 작사 작곡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같이 주제를 배우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소망소사이어티의 비전과 사명, 가치관을 소개해 소망소사이어티의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봉사를 오래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미혜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핵심 가치, 자원봉사활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매번 점검하고자 강조했다.

이어 모임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원봉사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 서부교계 게시판

### R커뮤니티케어 독서클럽 실시

R커뮤니티케어는 독서클럽을 실시한다. 일정은 2월 1일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서든캘리포니아 세미너리 LA(520 S La Fayette Park Pl. #210). 독서는 “감정사용설명서”(토포메르클레 저, 생각의 날개 출판)다. 독서클럽은 독서를 통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책을 준비해오면 된다.

▲문의: (323)515-0305

### 남가주사랑의교회 디보스케어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이혼 별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디보스케어를 2월 9일부터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장소는 본당, 115호, 114호이며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4)772-7777

### 소중교회 설립6주년 기념감사예배

소중교회(담임 김기동 목사 774 S. Placentia Ave) 설립 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월 5일(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문의: (714)990-9191

### 부목사 청빙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안디옥교회(담임 강준수 목사)는 부목사(교육)를 청빙한다. 이민교회 경력(교육) 3년 이상 된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자로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총회소속 가입이 가능한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설교가 가능한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목사안수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추천서(미주지역 목회자 2명이상) △최근 영어설교 영상 1회분(DVD or Web-link) △자기소개서(가족포함)이며 서류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revpetergang@hotmail.com

### 남가주원로목사회 모임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홍순도 목사) 모임이 9일(목) 오전 11시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에서 열린다.

▲문의: (818)884-2391

### OC한인회,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정인혁) 초청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이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대 장로)주최로 28일 오후 6시 남

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가 ‘Light Cavalry Overture’, ‘You Raise Me Up’, ‘The Sound of Music’, ‘Old Pop Medley’ 등을 연주했다.

이어서 소프라노 줄리김과 테너 오위영 목사, 라크마합창단(지휘 전창한), 피아니스트 김창달(김소피아노 대표) 씨가 찬조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설날노래와 고향의 봄을 이날 모인 관객들과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축복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탈힐링센터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채 목사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유력 대선후보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나

## 반기문·이재명·안희정·박원순 등...보호받아야 할 약자처럼 인식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자들이 애용하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의 논리에 숨어있는 독소에 무지한 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동성애=인권’ 추켜세우는 대선 후보들

반 전 총장은 24일 교계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엔 불교지도자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지사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014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국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수자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인권권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동성애는 인권 아닌 부도덕한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부도덕한 성적 취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동성애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법적·도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며 동성애도 보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폈고,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에 포함시킨다면, 마약복용자 성매수자 같은 이들도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NO', 동성 간 성행위자

이들 대선후보가 사용하는 표현들에도 문제가 많다. ‘차별금지’ 논리에는 동성애를 비판하기만 해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가 숨어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에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관을 해서는 안 되며 도덕·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에서도 동성애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이 유독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차별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계도 ‘벚꽃 대선’ 채비...후보 검증 등 서둘러

### 동성애·이슬람 등 관심 사안 주요 후보들 입장 분석 착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의 유예를 드러내면서 교계도 코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정국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밝힌 대로 오는 3월 13일 안에 헌재가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4월말~5월초 소위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목회자 및 기독교인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2017 정의평화 기독교대선운동’은 내달 7일 창립대회를 연다. 앞서 지난 10일 발간대회를 가진 기독교대선운동은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의 잘못과 측근비리, 적폐들을 분명히 봤다”면서 “반드시 왜곡된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 하나님의 공의

를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대선운동은 경제정의와 평화통일·생태복지 분야 등 4개 분야 대선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공정선거감시운동, 성서적 민주시민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수도권과 영·호남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와 강연회,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특히 내달 중순부터는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TV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후보검증 작업에도 나선다. 기독교대선운동 홍보위원장 장병기 목사는 30일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대중운동으로 확대하면서 이웃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대선후보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해 정책 등에 대한

검증 채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동성애 금지 여부와 이슬람에 대한 입장, 종교인 납세 문제 등 교계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 중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에 대해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선거 때마다 후보를 세운 기독교 유당의 경우 별도의 대선후보를 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유당 관계자는 “우리 정당의 가치를 수호하는 후보를 기성 정당의 견선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은 18세 참정권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마산 등 지역별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신학교육기관인 기독교원노헤미야가 최근 개설한 신학캠프도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1일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열린 캠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에 대해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행사를 담당한 하삼수(세종 함께 걷는교회) 목사는 “조만간 부산에서도 같은 주제의 신학캠프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때가 때이니만큼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인론회 등도 공명선거 캠페인과 언론 감시활동 등을 준비 중이다.

## 교육차원 신앙 소개한 교사들 감봉 등 ‘징계’ 교계, 형평성 잃은 ‘과도한 처사’ 반발

강원도교육청이 춘천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에선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교사들이 특정종교를 편향되게 교육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23일 이들에 대한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하거나 부적 없이 “예수보혈”이라고 부른 뒤 가게 했다. 다른 교사 두 명은 도덕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간증 동영상 보여줬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인권보호위)는 “교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보호위 서기성 총무는 “확정한 결과 학생 2명이 먼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며 교사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에 교사가 자신 신앙인임을 밝히며 ‘예수보혈’이라고 외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학생들 사이에 화장실을 가며 ‘예수보혈’을 외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됐고, 교사도 모르게 중이에 예수보혈이라고 써서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춘천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에선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교사들이 특정종교를 편향되게 교육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23일 이들에 대한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 한국교회 회복·부흥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 개최

###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내달 7일 제주서 출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다음달 7일 순복음제주중앙교회를 비롯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준비위원장 강신정 목사)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국 수십개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의 주제 성구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척기 마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다니엘 9:19)이다.

행사 고문은 조용기 오피스 립인식 이정익 윤석전 목사가 맡고 있다. 연합회 측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 남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 부흥을 위해 역사적인 10시간 기도회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찬양과 말씀, 기도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고명진 박찬환 소강석 유관재 유승민 이영한 장경동 정성진

강신정 옹공의 목사, 김광수 이용희 교수 등이다. 기도회는 2월 7일 순복음제주중앙교회(김대수 목사), 3월 20일 군산 방주교회(장미선 목사), 4월 11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영만 감독), 5월 3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대행 이형원), 6월 6일 논산 한빛교회(강신정 목사), 7월 3일 대구 샘깊은교회(손석원 목사), 8월 15일 분당 꿈꾸는교회(박창환 목사), 9월 25일 강릉 반석감리교회(서석근 감독), 10월 18일 경북 포항교회(조근식 목사)에서 열린다. 또 신길성결교회(이기용 목사), 새대구침례교회(황일구 목사), 세종송담교회(임공영 목사), 울산아름다운교회(안경수 목사)에서도 '전국 10시간기도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행사는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와 극동방송이 협력하고,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샘깊은교회, 누가출판사, 논산한빛교회, 제주나비스호텔 등이 후원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간기도회를 개최하기 원하는 교회는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 “동성애조례 폐지 않으면 안희정 낙선운동 돌입”

### 충남교계, 태도 안 바꾸면 안 지사 주민소환도 추진 예정

충남지역 교계는 유력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동성애 옹호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신정 목사)와 충남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지사가 동성애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 지사에 대해

선거 낙선운동과 주민 소환 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최태순 대전중앙장로교회 목사는 “안 지사가 최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충남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통과시키고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런 활동에 영향을 받아 15개 시·군의회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가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앙을 무참히 짓밟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 충남 기독교인들은 안 지사의 왜곡된 동성애 옹호·조장 시각에 우려감과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안 지사가 그동안 진화력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 옹호 인권논리를 적극 펴고 있다”면서 “안 지사가 만약 인권조례 폐지 약속을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주민소환운동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증진 조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안 지사의 발언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조례가 인권증진과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 교회연합 속도 낸다...한기총 개혁작업도 순항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연임됐다. 이로써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데 필수적인 한기총 개혁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대표회장인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28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이 목사는 “작은 목소리로 경청하겠다”면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부터 새롭게 개혁한 뒤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 목사의 연임으로 한기총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연임하면 이른 시일 안에 정기총회를 열어 한기총 전면 회의 7·7개혁정관을 복원하고 대표회장 순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를 기반으로 탈퇴 교단들

의 복귀를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기총 개혁이 마무리되면 한교총 아래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를 아우르는 큰 그림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이 목사가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만큼 한국교회 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은퇴목사라는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김노아씨 측은 “은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그 문제는 이미 문서 등을 통해 명멸히 검토했다.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기 김탁기 목사가 “김씨 측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선거 안전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 크리스천 기업의 예배가 ‘종교자유’ 위반?

### 이정미 의원, 이랜드 ‘특정종교 강요’ 주장 논란

크리스천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 참석을 권유하거나 기도모임을 갖는 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일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랜드 그룹의 ‘큐티(QT: Quiet Time) 모임’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랜드 그룹은 창사 이래 37년간 이어온 큐티 모임을 공식 폐지했다. 이 의원이 지난 24일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서를 통해 이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독교 기업의 종교활동 시간을 막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시스템즈가 업무 시간을 전후해 큐티모임을 진행하면서 부서별로 직원들의 참석을 공지하고 참석 현황을 체크하며 이를 인사사고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랜드의 처사는 특정종교를 강요한 것으로 인권침해이자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랜드 측이 모든 직원들에게 오전 7시 출근을 종용해 오전 7시20분부터 시작하는 성경공부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를 강력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큐티 모임은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큐티모임에 참석치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계열사와 부서, 팀별로 진행된 자발적 모임을 마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종교모임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큐티 모임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도모임 성격으로 보면 된다”며 “이런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고서는 오히려 인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큐티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했다. 대법원은 1998년 체플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학위를 받지 못한 송실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위

수여 이행청구소송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적을 제정할 수 있다”며 패소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교 체플의 위헌 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만큼 각학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한국교회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기독교 기업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의 지나친 종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이효상 교회건강연구원장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암묵적 강요에 의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선교방향도 아니다”며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때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71)

## 기아(飢餓)에 대한 거시적 이해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태초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인간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 세상에 '빈곤과 기아'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음식이 남아 버리기 일췌이지만 다른 편에서는 음식이 부족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구촌에는 기아로 인해 5초에 1명씩 어린 생명들의 불꽃이 꺼지고 있다. 개와 소는 배를 채우지만 사람은 허기져 죽어가는 아이러니한 시대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는 수 억 명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

첫째는 자연재해이다. 몇 년 사이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진, 홍수, 열대 폭풍우,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 등은 저개발국가의 식량 안정성을 위협한다. 특히 가뭄과 산림훼손은 곳곳의 토지를 사막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대의 73%, 아시아 대륙의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역의 71%가 이미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둘째는 전쟁이다. 1992년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식량 위기 비율이 15%에서 35%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은 대부분 분쟁으로 야기된 것

는 것이다. 선진국의 식량 창고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양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

세계 식량 생산량은 지난 4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잉여작물들은 세계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만큼 남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들의 최대의 이윤창출을 위해 곡물을 태우고 가축을 죽인다. 배고픈 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아문제 해결은 단지 유엔과 국제적십자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수확량과 곡물의 판매 가격이다. 죽어가는 사

세계 인구의 11%인 8억 4천 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 기아의 최대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불합리한 경제제도이다. 기독교 교회가 선교적 안목으로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기아는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고통일 따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교회마저도 비슷한 의식이다. 선교를 한다지만 대체로 영혼구원에 집중해 있다. 우주를 비행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있는 이 문명 시대에 어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오랜 분쟁과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셋째는 빈약한 농업 기반 시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빈곤과 굶주림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충분한 도로와 개간 시설 등과 같은 농업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주로 도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는 부의 편중이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평등하지 못한 부의 분배구조이다. 국제화를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더욱 약육강식의 세계로 몰아간다.

다섯째는 무관심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사람이 먹는 것 20%, 가축이 먹는 것 80%이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인류호혜사상이 없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어떤 사람은 애완용 짐승보다 돼우를 못 받은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다.

랑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 것이다.

기아대책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불안과 영양실조는 단일의 이해관계자나 분야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국가적 조치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농업생태 분야에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적인 과제는 인도적인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FAO는 당면한 긴급구호를 위해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있다. 여기 원조식량뿐만 아니라 국제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개발지원금도 풀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개도국들을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 체제 안정이다. 민주화를 격려하는 한편 이들 나라의 수출품을 사들여 자국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그들에게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작되는 땅은 7억 헥타르 정도인데, 작은 투자로도 경작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문맹을 퇴치한다거나 예방 가능한 질병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긍정적 목표를 위한 전 지구적 연대도 필요하다.

**세계 기아 현황**

기아란? 사전적 의미는 '굶주림'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심각한 상태의 영양실조를 유발한다. 영양실조는 단계적으로는 사람들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전염병을 유행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을 저해하여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극심한 기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면역력 저하로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기아는 "소리 없는 쓰나미(Silent Tsunami)"라고도 한다.

기아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다. 국제연합(UN)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세계 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4200만 명이라 했다. 이는 세계 인구의 12%로서 8명당 1명꼴로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의 주된 원인**

**세계 식량 현황**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교회의 역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아 현상은 식량의 부족이 아닌 '나눔'의 부족 때문이다. 교회는 특히 가난한 이를 위한 '나눔'이 '자비의 행위'라기보다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와 선교에 인식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세계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구제비로 얼마를 내고 있는가? 많은 행정비, 건축비, 인건비에 비교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을 등한시 하고 복음만을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빵 문제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밥 피어스 목사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의하여 저의 심장이 깨어지게 하옵소서(Let me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월드비전을 창시했다. 크리스천은 사랑의 실천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맺음 말**

세계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74억 명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도 식량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선진국에서는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사람이 영양실조로 굶어죽어 가고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질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잘사는 소수가 자원과 소득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 가진 만큼 나누어야 하는데 어디 인간의 욕심이 그러하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더 검소하고, 덜 소비하며 더불어 살아가면 지구촌 기아는 없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세상은 소망이 없다. 우리 교회가 먼저 자기 울타리를 깨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 스와지랜드

우아프로젝트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29:11).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스와지랜드 선교지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또 그 밖의 여러 선교지에서도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묵은 해였지만 이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나간 시절의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계획-의과대학설립과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들 중에서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난 일년동안은 좀 쉬면서 지켜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동역하였던 SCU와 헤어져서 이후에 SCU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기대했으나, 새해를 맞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SCU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대를 설립해서 2017년 8월에 개교하겠다고 정부 쪽에 공언하였기에 우리들이나 정부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추진하였던 국립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도 국립대쪽과 의견교환을 했고 잠정적 합의 한 상태이지만 스와지에 두 개의 의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단 SCU의 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스와지랜드 의대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술하고 해결방안, 특히 가장 중요한 교수요원의 확보에 관한 장,단기 대책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목표인 부족한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은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로 2016년 1월 정원일 선생님(순환기내과)의 단기 방문을 필두로 11월 말의 조영준 교수님(총남대 안과) 및 박명재 원장님(재미 산부인과)의 사역까지 전부 15팀이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이일을 위해 전력으로 헌신한 남상윤 선생님, 김한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현지 사역자들과 후원하며 기도도 성원하신 후원자님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계획하는 검진 프로그램, 보건부학교 보건팀과의 합동으로 진행할 어린이 신체검사 프로그램 등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면으로 계속)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4) 설교본문 - 열왕기상 2:1-9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설기고시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i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7/1(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고시부 회계: 조종철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고백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약 3천명 북미의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를 지난 직후 미국의 33개주와 5개국이 벌티모어(Baltimore, 메릴랜드)에 모여 매 3년마다 열리는 북미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3천명 가운데 영어부에 참석한 중국인 기독교인은 600명이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는 "Unleashed! Together for God's Global Glory"(제한된 상황에서 해방시키자! 하나님의 열방적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힘쓰자)였다. 이 선교대회의 중요 감사들은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전체모임의 스피커로 Francis Chan목사(Pastor/Author, Crazy Love Ministries)와 Bob Sjogren 목사(President of Unvelling GLORY)였다. 둘째로 중국어 집회의 스피커로는 중국 상해에서 가정교회 목사로 사역하며 지난 2015년 5월 홍콩과 2016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에서 대회장 역할을 했던 Quan Cui(최권 조선평목회자) 목사를 포함한 네 명의 중국교회 중요 지도자들이다. 셋째로 영어권의 중요 스피커들은 북한의 감옥에 억류되었던 YWAM의 케네스 배선교사의 간증과 시카고의 Church of the Beloved에서 목회하는 최다윗 목사를 포함한 두 분의 한국교회 지도자였다.

나는 날(12월 31일) 많은 참석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결심을 다짐하며 그 결심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 560명의 참석자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자기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대사명인 선교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심의 카드를 적었다.
- 50명 대학생들이 선교사의

위하여 "다음 단계"를 상의하는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 장년 참석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시내에 가서 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불쌍한 자들에게 제공하고 젊은 청년들은 그들이 준비한 선물 패키지를 추운 곳에 유하는 노숙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을 중심으로 매 3년마다 선교대회를 갖는다. 그러므로 AFC는 이 세 지역을 연달아 돌아가며 매년 중국인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매 3년마다 북미의 각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북미에서 열일이 일어나고 있는 AFC의 중국인교회 선교운동과 근래 중국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한국의 선교운

동과 비슷하다. 2015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800명의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하였고 2016년 9월 제주도에 모인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1,200명의 중국가정교회와 삼자교회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이 두 선교대회는 2030년까지 중국교회에서 2만 중국선교사를 파송하는 모토를 걸고 선교의 도전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북미의 4,000개가 넘는 한인교회들도 1988년부터 매 4년마다 열리는 KWMC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2016년 6월 제8회

로 사역하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수는 34만 명이다. 현재 전 세계의 중국 유학생 수는 400만인데 그중의 30%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유학생들 중 41%는 학사과정이며 39.6%는 대학원 레벨의 학생이다. 미국의 중국유학생들 중 75% 이상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학생들 중 12%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다. 나이 18세까지 공산주의의 무신론 교육을 받아온 중국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교회에서 배운 진도와 선교의 열정을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내에서 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2017년 초에 하와이대학에서 4년 동안 언어학으로 학사학위 마친 한 중국 여학생이 호놀룰루의 한 미국교회에서 다른 중국학생들과 같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26명의 전임사역자를 갖고 있는 AFC는 미국의 큰 대학에 파송하여 특별히 중국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년 크리스마스 직후 북미의 대도시에서 중국인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AFC의 2016년의 예산은 5백만 달러가 넘었다. 21세기 세계복음화는 중국내 1억의 기독교인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교회의 선교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같이 손을 잡고 서로 협조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rohonolulu@gmail.com

## 선교기



**노봉린 박사**  
AGST-Pacific 신학대학원 원장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 북미 1,300개 중국인교회에 선교의 불 확산 지난해 말 제12회 북미(동부) 중국교회선교대회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생활에 적용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 86명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헌신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 115명 대학생들은 자기들의 캠퍼스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 87명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 400명은 자기 생애의 앞날을 선교와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기

인선교대회 비교

이 선교대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약 1,300개 중국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넣어주는 집회인데 필라델피아에 파라다이스 본부를 두고 있는 Ambassador for Christ(AFC)라는 중국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관하였다. 북미의 많은 중국교회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 선교대회를 치르고 있다. 미국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매 3년마다 선교대회를 2016년 12월말에 가졌고 2017년 12월말에는 북미 서부지역(LA를 중심으로) 매 3년마다 선교대회를 치르며 2018년 12월말에는 북미의 남부지역

동과 비슷하다. 2015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800명의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하였고 2016년 9월 제주도에 모인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1,200명의 중국가정교회와 삼자교회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이 두 선교대회는 2030년까지 중국교회에서 2만 중국선교사를 파송하는 모토를 걸고 선교의 도전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북미의 4,000개가 넘는 한인교회들도 1988년부터 매 4년마다 열리는 KWMC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2016년 6월 제8회

다. 김선영 교수(sykim@cnu.ac.kr, 010-4408-7154, 070-4123-1652: 스와지사용, 김경진 부장(010-2743-8430)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도 8분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해주신 135분의 정기후원자분들과 50분의 특별후원자분들이 계셨기에 참으로 큰 힘이 되었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수자는 아니더라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복된 새해이시

### 선교대회의 열매

이 선교대회의 주제는 "Unleashed"라고 세속화된 사회 생활에서 역매인 중국인 기독교인들을 주님을 위해 살기위하여 부적절하며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진도와 선교에 같이 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 영적도전을 받은 참석자들이 선교대회가 끝

### (13면에서 계속)

2014년 9월 정년퇴임과 함께 스와지로 돌아오셔서 1기 사역자로서 열심히 섬기신 남상운 교수님(산부인과)께서 일단 스와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스와지센터장과 PMCI지부장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다른 국가에서의 사역을 위해 준비중이신데 이 부분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첫 2기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박승욱 선생님(스와지내과)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월 7일에 돌아오셔서 이곳 스와지에서 연합한 부분 중 하나인 스와지내과 분야의 내시경 및 초음파 뿐 아니라 심장예고 등 제반 내과적 질환을 담당

하시게 될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적합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와지보건부와 대한비뇨기과학회가 MOU를 맺고 서로 협력을하기로 한바 금년 2월에 비뇨기과학회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비뇨기과 부분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충남대병원에서 췌석기와 내시경 장비 일부를 기증해 주셔서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하나인



비뇨기과 진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관과의 협력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2016년처럼 진료팀으로 단기

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 새로운 상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단기 사역자(1-4주 내외)들을 보내주시기를
-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도록
-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2(Fri)-15(Mon), 2017
- Place: Anchorage, Alaska USA

####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2)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3)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4)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c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718) 986-8442 E-mail: kfcpcny@g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cpcny@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0)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 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 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이 이야기는 한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 기독교 교육에 의해 (criti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련의 관여(Invol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그리고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기독교 교육적 관여와 연속성 상에 있는 "

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삶과 앎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인종차별과 함께 문화적 불평등을 확실히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이며,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미국이라는 한 사회에 모여서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사실 이 자체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문화이기도 할 테지요).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존재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에서 우상하게, 힘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기준이 되고, 다른 다양한 문화들보다 고상하고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양식과 가치는 열등하거나 혹은 심하게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것이 옳지 못한 일임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정신을 품고 교육적으로 실천하여 문화적 불평등이라는 이 사회의 깨어짐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교회들이 이미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명목상 실행이 있을 뿐 실질적인 실천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부터 진실하고 유쾌하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누리며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정신애 박사  
(사카이트리크리스챤센터 교수)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교육 관여는 백인들의 진실한 회개와 사죄 있어야  
한인들도 백인에 편승하거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타인종 존중하도록 교육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관여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 내 실생활에서 인종간 상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도록 돕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한인들 스스로 먼저 다른 인종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대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즉 모든 인종들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고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인종"적 상호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다문화 교육은 각각의 다양한 인종들이 민족과 나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해 온 "문화"에 대한 상호평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교육에 열성을 다해오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고등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문화, 즉 그들의 입장에서 열등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교화 및 교육의 대상이라 여기면서 말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문화적 평등성도, 상호성도, 다양성도 진정한 의미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문화 우월주의가 존재하고 있지요). 이 때문에 미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문화들과 그 문화와 가지고 온 혹은 형성해 온 이민자들은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당해야 했고, 이 때문에 그 자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자존감이 곤두박질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으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혹은 배울 수 있었을 풍성한 잠재성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는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등하고 소중하게 창조한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고 멸시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들을 함께 가져 온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조화롭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문화간 우열을 논하지 않고, 우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그리 여기고 그리 행하는

의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교육의 근거가 기독교적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양한 문화들의 양식과 가치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양식과 가치에 상치되는 부분들을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기독교적 관여를 할 때, 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는 문화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한 인종 혹은 민족 혹은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자체는 종교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종교다원주의의 논리로 귀결되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부분을 해당 문화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힘들지만 문화와 종교를 동일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상대성과 다양성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절대진리 부재논리 혹은 상대성 논리로 왜곡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이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기독교적 관여를 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때,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삼하8:1-6)

삼하 8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이 주변 국가를 항복시키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했어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만 경외하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잘된 후에도 살아가 편해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삼하8:1-8)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서쪽 블레셋에서 동쪽 모압 암몬, 남쪽 에돔에서부터 북쪽 유브라테 지역까지 완전히 국토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매뎀암마"(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다만 암몬 에돔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었는데 힘이 없는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창15:18 이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뤄진 것입니다.

수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삼하8:9-12)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얻은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옵니다.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고생한 만큼 이제 자신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의 왕들이 금은보화를 다윗 왕에게 가져와도 금은보화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더 금은보화가 넘치고 항상 여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고생한 만큼 이제 자신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젊은

목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삼하8:13-15)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날이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나라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먼저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공정한

게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하고 강해졌고 국토는 넓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가 점점 더 잘될수록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끌어감으로써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금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때(삼하8:15-18)

다윗은 모든 분야에 관료직을 전문화 시키면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세웠습니다. 예전에 사울왕은 오직 힘을 쓰게 생긴 사람을 불러다가 군사관료들만 세웠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사관료들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전문적인 관료를 임명함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군대장관을 세우고 사관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관"은 왕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연락을 수월하게 하는 행정비서관을 세웠습니다. 또한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수비대를 세웠고 신실한 대신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먼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맡은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전문가가 돼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삼하9:1-10)

다윗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말씀은 요나단의 아들들을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왕자와 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아름다

운 마음과 그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늘 의에서 도와준 용기를 주었던 요나단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찾아서 왕자와 같이 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광운동 340-1(131-231)</p>	<p><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82)2-2643-6754~5 군포시 김성동 870-10호</p>
<p><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광운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82)977-8383~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6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이텐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82)2-842-1968, 팩스: (82)2-842-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영등포구 독막동 520 (148-30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0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842-1968, 새벽 (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418-0481, Fax. (8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독막동 172 29(삼일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210-5500, Fax. (82)210-5510 (841-370) 강남 양곡동 신성로 415 www.yangok.org</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942-6881, Fax. (82)942-688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82)942-6881, Fax. (8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Tel. (82)32-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94-1(1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성내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5-9191, Fax. (82)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2)

### 프랑스, 스위스 탐방

여행팀은 런던을 더 살피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프랑스로 향했다.

유로스타를 이용하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하자, 히드로 공항의 검색이 무색할 만큼 까다로운 검색을 거친 후에야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유로스타는 유럽대륙과 영국을 가로지르는 도보해협을 건너 2시간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상승이 흘러나오고 낭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파리에 도착하자 가이드는 삼엄하게

여급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장미의 창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 성당은 세계 3대 성당중의 하나로 이 시에 섬에 세워졌고 이 섬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가 생성되게 됐다고 한다.

루브르 박물관은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루브르의 안방마님'으로 별명이 붙은 레오나르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는 여전히 구름 같은 관람객이 몰려 있었고 프랑스 최대의 그림으로 꼽히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도 인기

자들과 수천 명의 신자들이 개신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나라가 프랑스다.

1598년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을 발표해 마침내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루이 14세에 이르러 낭트칙령이 폐기되자 대규모 위그노들의 프랑스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칼빈은 부의 정당한 축적을 환영했다. 또 직업 소명설을 주장해 귀족이나 양족이 될 수 없었던 도시 중산층의 환영을 받았다. 당연히 위그노들은 돈 많은 상공업자들이었다. 일찌감치 제철·염료·화

고 한다. 이 설명을 들으며 스위스의 시계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았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위그노를 받아들이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들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증기기관과 면직공업을 발전시켜 산업혁명의 방아쇠를 당기게 했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위그노의 공헌이 크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지적이다.

18세기 초 미국에 온 위그노들은 탄약기술을 보급시켜 서부개척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기여했다고

교한 칼빈의 의자 하나만 잘 보존돼 있다.

개톨릭의 성상 숭배 등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는 아무 것도 걸려 있거나 붙어 있지 않은 텅 빈 벽면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칼빈의 의자도 회중석 앞자리에 작은 팻말 하나가 붙어있는 채로만 놓여 있었다.

생피에르 예배당 길 건너에는 칼빈이 세운 칼빈아카데미가 시작된 작은 건물이 있고 칼빈의 생가도 가까운 곳에 보존돼 있었다. 그의 생가를 알리는 표시판도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칼빈아카데미에서 존 나스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 아카데미는 후에 제네바 대학교가 돼 그 대학 내에 있는 바스티옹 공원은 칼빈을 비롯한 네 명의 개혁자들 부조가 건립돼 있다. 칼빈 탄생 400주년에 건립된 종교개혁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4명의 개혁자들은 왼쪽부터 칼빈에게 영향을 미친 파렐, 칼빈, 그리고 칼빈의 후계자 베자와 존 나스가 조각돼 있다. 벽에는 당시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Post Tenebras Lux(어둠 뒤에 빛이 있으리라)'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다.

이렇듯 칼빈은 업적은 위대했지만 자신을 위해 아무 것도 남기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그는 제네바 공동묘지에 이름 없이 묻혀 있다.

### 위기 마운틴 정상에서 주일예배

제네바를 거쳐 취리히로 가는 도중에 알프스의 수천 개 산봉우리 중 하나인 위기 마운틴으로 올라갔다. 톱니를 이용한 산악열차 케이블카를 통해 올라가며 알프스 산맥을 경험하고 산기슭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들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주일예배는 알프스 산맥 위기 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Kulm 호텔에서 조명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진세 장로, 말씀 황기호 목사, 축도 류용호 목사가 맡아 드렸으며 예배를 마친 일행은 알프스 산맥을 뒤로하고 취리히로 발길을 옮겼다.

<이성자 기자>  
<계속>

## 위그노들 추방한 프랑스는 가난한 전제국가로 전락...오늘은 테러로 경계태세 칼빈의 주 활동지 제네바...자신의 흔적 남기지 말라 유언대로 묘비명도 없어



루브르박물관에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 김시보씨(파리에서 활동중인 화가임)

주위를 경계하며 소지품 관리를 잘할 것을 강조, 또 강조했다. 또한 테러 후유증 때문인지 곳곳에 중무장한 군인들의 모습들도 눈에 들어왔다. 터미널을 벗어난 일행은 흘러내리는 빗줄기 속에 웬지 모를 무게를 느끼며 숙소로 도착했다.

### 프랑스의 문화 체험

이튿날도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빗속에 비치는 에펠탑의 모습도 운치 있었고 나폴레옹이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시신이 되어 겨우 통과한 것으로 유명한 파리의 개신문, 샹젤리제 거리, 콩코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꼽히고 있는 노트담 성당은 가장 수직적이고 근엄하며 보는 이로 하

가 높았다. 이날 가이드를 맡은 김시보 씨는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화가로 박물관의 작품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 프랑스의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위그노(Huguenot)들의 활약 종교개혁을 이끈 개신교 신학자 존 칼빈은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개톨릭의 미움을 사서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했고 그곳이 그의 종교개혁 활동무대가 되었다.

프랑스, 하면 우리는 위그노(Huguenot)를 떠올린다. 위그노는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말한다. 칼빈주의를 추종하던 위그노들은 개톨릭 교회에 저항하며 '위그노 전쟁'을 벌였다. 특히 성 바돌로매 축일 대학살로 수많은 위그노지도



종교개혁자상 앞에서 기념촬영



알프스 산맥 위기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Kulm 호텔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학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다.

낭트칙령이 폐기되자 프랑스의 경제기반을 떠받치고 있던 위그노들은 정치적, 신앙적 망명길에 올랐다. 이 위그노들이 독일로 건너가면서 기술후진국이었던 독일이 프랑스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스위스로 이주해간 위그노들은 세계 산업을 발전시켜 스위스를 세계 최대의 정밀공업국으로 만들었다

한다.

그 위그노들의 개신교 신앙을 불쾌한 프랑스는 결국 가난한 전제국가로 전락해 루이 16세에 이르러서는 사치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는 결국 콩코드 광장에서 비참하게 참수되는 프랑스 대혁명의 희생자가 됐고 그 사치스러웠던 왕정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 미국인 중 과반수가 성경 읽는다

(1면에서 계속)

클릭 한번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즉각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 읽기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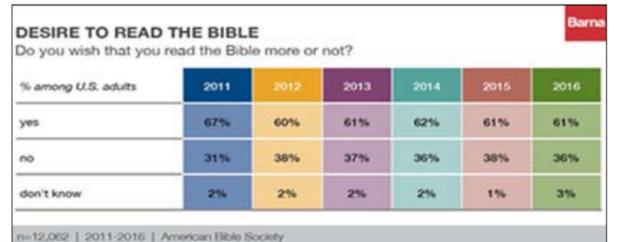
다이어트나 운동과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 역시 즉석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보상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이다.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옮겨가면 사람들은 성경 읽을 시간을 찾아

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목회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에게 죄의식의 멍을 놓지 말고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에게 위로와 안내를 해주는 책이 성경임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점도 일러 준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아직도 미국인들은 성경을 가지 있는 목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깨닫도록 사역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2017.3.13(월)~15(수)

#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 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이학준 교수

조직신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2G 크리스찬 교육센터 소장



신혁선 교수

사회복지  
Virginia Commonwealth Univ.  
YOUTH KOSTA 멘토



최병호 목사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  
아시아인 아메리칸 센터 이사장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노승환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담임목사님과  
함께 등록하시는  
평신도 지도자  
적극 환영!

- 장 소: 주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등록비: \$100 (교재 및 숙박)
-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협 력: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 국내 선교 위원회

- 숙 박: Four Points by Sheraton Richmond
- 등 록: 주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 주 관: 주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주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7509 WWW.LJKC.ORG